

80.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p>마태복음 13:24-30, 36-43</p> <p>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p> <p>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p> <p>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p> <p>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p> <p>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p> <p>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p> <p>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p> <p>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p> <p>37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p> <p>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p> <p>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p> <p>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p> <p>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p> <p>42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p> <p>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p>	<p>24 He put another parable before them,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may be compared to a man who sowed good seed in his field,</p> <p>25 but while his men were sleeping, his enemy came and sowed weeds among the wheat and went away.</p> <p>26 So when the plants came up and bore grain, then the weeds appeared also.</p> <p>27 And the servants of the master of the house came and said to him, 'Master, did you not sow good seed in your field? How then does it have weeds?'</p> <p>28 He said to them, 'An enemy has done this.' So the servants said to him, 'Then do you want us to go and gather them?'</p> <p>29 But he said, 'No, lest in gathering the weeds you root up the wheat along with them.</p> <p>30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and at harvest time I will tell the reapers, Gather the weeds first and bind them in bundles to be burned, but gather the wheat into my barn.'</p> <p>36 Then he left the crowds and went into the house. And his disciples came to him, saying, "Explain to us the parable of the weeds of the field."</p> <p>37 He answered, "The one who sows the good seed is the Son of Man.</p> <p>38 The field is the world, and the good seed is the sons of the kingdom. The weeds are the sons of the evil one, and the enemy who sowed them is the devil. The harvest is the close of the age, and the reapers are angels.</p> <p>40 Just as the weeds are gathered and burned with fire, so will it be at the close of the age.</p> <p>41 The Son of Man will send his angels, and they will gather out of his kingdom all causes of sin and all law-breakers,</p> <p>42 and throw them into the fiery furnace. In that plac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p> <p>43 Then the righteous will shine like the sun in the kingdom of their Father. He who has ears, let him hear.</p>
<p>시편 33:13-15, 18-22</p> <p>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p> <p>14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는도다</p> <p>15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살피시는 이로다</p> <p>18 여호와를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p> <p>19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p>	<p>13 The LORD looks down from heaven; he sees all the children of man;</p> <p>14 from where he sits enthroned he looks out on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p> <p>15 he who fashions the hearts of them all and observes all their deeds.</p> <p>18 Behold, the eye of the LORD is on those who fear him, on those who hope in his steadfast love,</p> <p>19 that he may deliver their soul from death and keep them alive in famine.</p> <p>20 Our soul waits for the LORD; he is our help and our</p>

<p>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p> <p>20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램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p> <p>21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p> <p>22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함을 우리에게 베푸소서</p>	<p>shield.</p> <p>21 For our heart is glad in him, because we trust in his holy name.</p> <p>22 Let your steadfast love, O LORD, be upon us, even as we hope in you.</p>
---	--

설교질문

1. 24절에서 천국이 좋은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은 누구이며 그 사람이 천국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될수 있습니까?
2. 세상인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이를통해 세상에는 오직 신자와 불신자만 있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나눠봅시다.
3. 29절을 통해 알수있는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를통해서 알수있는 최후심판 이전의 이 세상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4.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이시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전의 나의 모습과(마음상태와) 비교했을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이시라면 최후의 심판 이후에 정말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실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묵상해 보고, 개인적으로 지금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어떤 마음상태가) 변하길 기대하는지 나눠봅시다.